

전통 공예

무라카미 특유의 두 가지 전통 공예품은 지역 역사에서 현저하게 대조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.

무라카미 조각 칠기(기보리쓰이슈)는 정교한 디테일과 진한 붉은 색조로 유명합니다. 다이묘의 후원 아래 장인들이 일하던 성곽 마을로서의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. 에도 시대(1603-1867)의 무라카미 무사들은 에도(현재의 도쿄)에 주둔하면서 목각 기술을 배웠고, 그 지식을 천연옷칠 생산지로 유명한 무라카미로 가져왔습니다. 그 결과 전문 장인들이 모여 고위 무사, 성직자, 부유한 상인을 위한 접시, 꽃병, 가구 등의 장식품을 제작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.

목공예가는 먼저 선반에서 내구성이 강한 큰 잎 목련 또는 마로니에 나무 조각을 깎은 다음 조각가에게 넘깁니다. 그러면 조각가는 모양을 더 다듬고 장식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. 그리고 옷칠 장인은 작품에 여러 겹 옷칠을 한 다음에 말털 브러시로 숯, 숯돌 가루, 물을 섞어 옷의 자연스러운 광택을 무광택 마감으로 바꿉니다. 그 후 조각가가 조각에 디테일을 더하고 투명한 옷칠을 한 번 더 하여 작품을 완성합니다. 오늘날의 장인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 무광택 표면이 마모되면서 옷칠 특유의 광택이 조금씩 되살아나며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무라카미 조각 칠기는 장식용 제품에서 시작되었지만, 현재 현지 장인들은 컵, 젓가락, 국그릇 및 기타 일상용품을 만들 때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반면에 **우에쓰 인피 섬유**는 사무라이 사회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등장했습니다. 선사 시대부터 우에쓰 지역(현재 니가타현 북부, 야마가타현 북부, 아키타현 남부)의 외딴 마을 사람들은 린덴 나무의 인피(속껍질 섬유)로 천을 만들어 왔습니다. 6 월과 7 월 초의 장마철에 나무에서 인피를 제거합니다. 그런 다음 잣물에 삶고 쌀겨에 담가 섬유질을 부드럽게 한 다음, 가을바람에 말려서 실을 뽑아 직물로 짠습니다.

인피 천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옷이나 숲에서 견과류와 열매를 운반하는 마대를 짜는 데 사용했습니다. 오늘날 장인들은 이 소재를 연필과 명함 케이스, 지갑, 모자 등 다양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세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.